트럼프 2024년 美대선 출마 공식 선언…3번째 대권 도전

대선 과정 험로 예상…낮은 지지율 극복해야
공화당 내 강력한 경쟁자 등장한 것도 변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책임론에 휩싸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밤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나는 오늘밤 미국 대통령 입후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번이 3번째 대권 도전이다. 그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승리했지만,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해 재선에 실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러라로 자택에서 대선 출마를 발표하기 앞서 연방선거위원회(FEC)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CNN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날인 지난 7일 오하이오주 지원 유세에서 "마러라고에서 15일 매우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예고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상원 장악에 실패하고 하원에서도 가까스로 다수당의 지위를 탈환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대선 레이스에 시동을 걸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서는 내달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이후로 출마 선언을 미뤄야 한다는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3번째 대권 도전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 중간선거 출구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인기가 없는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낮았다. 폴리티코와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15일 공개한 조사에에서도 유권자의 65%는 트럼프가 차기 대선에 도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공화당 내에선 재선에 성공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디샌티스 주지사는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쳤다.

지난 13일 야후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과 친 공화당 성향 무당층 유권자의 42%가 차기 공화당 대선주자로 디샌티스 주지사를 선호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한달 전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45%로 디샌티스 주지사(35%)에 10%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주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디샌티스 주지사가 우세했다.

텍사스 공화당과 여론조사 업체 CWS 리서치가 15일 공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오늘 대선 경선이 치러진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를 묻는 질문에 디샌티스 주지사가 43%의 지지율로 1위에 올랐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32%를 얻는 데 그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5%),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4%)가 그 뒤를 이었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될 수 있을까… "민주당이 가장 좋아할 후보"

WSJ 사설로 트럼프 재출마 강력 비판

미국의 보수 신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민주당에 패배할 도널드 트럼프를 공화당이 후보로 뽑을 것인가"라고 트럼프의 대선 재출마를 비난했다.

트럼프 주변에선 최소한 조지아주 상원 재투표가 실시되는 다음 달 6일까지 출마 선언을 미루도록 권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서둘렀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론 드샌티스와 글렌 영킨 주지사 등 공화당내 경쟁자를 기선 제압하려는 것이다. 트럼프는 또 법무부 기소를 피하길 원한다.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해 공화당원들이 보호해줄 것을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는다. 이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신뢰한다는 뜻이다. 우리 헌법 체계는 실수를 견제하고 바로잡게 해준다. 우리는 2016년에도 트럼프의 성정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가 당선해 여느 대통령과 다름없이 대우했다. 트럼프가 성공을 거둔 정책도 많다. 세금, 규제 완화, 에너지 안보, 사법제도, 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 수교, 이란에 대한 환상 깨기 등등이다.

그러나 자아도취적이고, 자제력이 없고, 보좌관들을 마구 대하고, 유치하게 구는, 그의 성격적 결함에 성공들이 묻혔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까지 재선이 유력했지만 팬데믹에 잘못 대처하는 바람에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조 바이든에게 졌다.

그가 패배를 받아 들였더라면 지금쯤 인기가 바닥인 바이든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선거 결과를 터무니없이 부정했고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점거하도록 부추겼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선거 결과 인준을 거부하도록 압박하다가 실패하자 그의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동은 영원히 오욕으로 남을 것이다.

지난 주 선거에서 트럼프를 따라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한 후보들이 대거 낙선했다. 온 나라가 미래로 나아갈 것을 바라지만 트럼프가 거부했다. 자신이 패자라는 걸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2016년과 달리 2024년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던 시절을 기억한다. 유권자들은 이미 2018년과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매일 일으키는 소동을 심판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또 그런 일을 벌이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원들이 그의 재선을 원할 것이다. 그만이 갈수록 급진적이 되는 좌파를 막아설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난 2년 새 트럼프의 지지도는 바이든보다 처졌다. 공화당을 분열시켜 민주당의 지지율을 역대 최대로 높였다. 만에 하나 트럼프가 이기더라도 유능한 인사들을 행정부에 유치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 번만 재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임하자마자 레임덕에 빠질 것이다.

트럼프 지지 기반이 굳건해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점이 공화당의 딜레마다. 트럼프가 후보 지명에 실패하면 그 결과를 받아들일까? 공화당 후보를 사보타주하려고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대선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진 않을까?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건 아닐까? 그는 2016년 당내 경선에서 다른 후보가 지명되면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가 기소되면 그를 돕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분명 트럼프가 다시 공화당 후보로 지명되길 바란다. 2016년 트럼프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지금 트럼프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하원 지배를 무력화했고 2020년 트럼프 재선에 반대했다. 지난 주 트럼프지지 후보들 대부분이 탈락했다. 공화당과 미국으로선 트럼프가 차세대 공화당 지도자에게 2024년 대선 후보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최선이다. 트럼프가 재출마를 고집하면 공화당 유권자들은 공화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지지해 급진 좌파들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줘야할 지를 결정해야 하게 된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